전주매일 CMYK

▶▶ 매일 INDEX

3면
"호남의 정치력 복원해 달라"

전주매일

2022년 8월 12일 금요일 (음 7월 15일) 제3078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경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11일 전북지역에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물에 잠긴 군산 옥회천 공사현장을 찾은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직접 현장을 지휘하며 공무원들에게 피해 최소화와 예방에 선제적·과감하게 대응해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호우피해 최소화·예방 선제·과감하게 대응을"

김관영 도지사, 군산·익산 수해 현장 직접 찾아

"마을단위 홍보 강화, 인명·재산피해 예방 만전을"

전북도내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관영 도지사는 출근과 동시에 밤사이 호우 대처 상황과 기상특보 등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기존 일정을 취소하고 수해 현장을 직접 찾았다.

김 지사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익산시 송학동과 군산시 수송동지역 수해 현장을 연이어 찾아 피해 상황을 일일이 점검하며, 향후 복구계획, 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도 "철저하고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9일 김 지사는 호우 피해에 대비한 선제적인 피해 예방 대응과 빈틈없는 상황 관리 등에 대한 특별 지시를 내렸다.

김 지사는 이날 익산 수해 현장에서 "피해 지역은 배수관로 정비가 안돼 잦은 침수가 발생되는 지역으로 알고 있다"며 "익산시와 협의해 피해 지역 주민들이 빠른 일상 회복이 가능하도록 신속히 복구하고 불편 사항은 해소되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군산 현장에서는 "지난 2012년 태풍 볼라벤으로 인해 큰 물난리를 겪은 곳이어서 이후에 배수로를 지방하천 옥회천으로 지정 관리하게 됐다"며 "지난해 착공된 하천정비사업이 조기에 준공돼 군산지역의 침수 예방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이날 관계공무원들에게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과할 정도로 대응해야 한다. 선제적으로 과감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도내 시·군과 함께 마을단위로 주민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저지대와 농경지 침수, 산사태, 축대 붕괴 등으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달라"며 "도내 유명 산·계곡 등의 관광지를 찾은 탐방객들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라"고 당부했다.

전북도는 이에 앞서, 11일 오전 조봉업 행정부지사는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2단계를 발령하고 도 유관부서, 17개 관계기관, 7개 해당 시군에 집중호우를 철저히 대응하도록 재난안전 특보 사항을 주문했다. /김경수 기자

미래성장·경제에 '방점'

전주시, 민선8기 조직개편안 마련

1실 5국 2구 2직속 10사업소 86과·담당관 개편

시장 직속 전담기구 '미래성장지원실' 신설

중앙부처 정책 기조·전북도와의 연계 등 고려

19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 시민 의견 모으기로

전주시가 '강한 경제'를 구현하고 천년 미래를 여는 전주의 대변혁을 준비하기 위해 경제와 미래성장 분야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조직을 개편한다.

시는 민선8기 출범에 발맞춰 '강한 경제, 전주, 다시 전라도의 수도로!'를 목표로 △시정 운영 동력 확보 △효율적인 업무추진 △중앙부처 정책 기조 △전라북도와의 연계 등을 고려한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조직개편을 통해 민선8기 시정 목표 달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역점업무 추진부서는 신설하고, 중복되거나 기능이 쇠퇴한 분야는 통·폐합하기로 했다. 유사한 업무는 재배치하기로 했다.

조직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대규모 개발사업과 재개발·재건축 등 민선8기 핵심 공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시장 직속 전담기구인 미래성장지원실이 설치된다.

기존 도시공간혁신추진단이 재편되는 미래성장지원실은 △종합경기장개발과 △재개발재건축과 △도시개발과 △도시정비과를 두고 핵심 공약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게 된다.

시는 미래먹거리가 될 신성장산업 확장과 전주형 일자리 창출 등 경제도시로의 체질 개선을 위해 경제산업 분야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은 경제산업국으로 명칭을 바꾸고,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신성장산업과와 소상공인 지원 등을 담당할 민생경제과를 신설한다. 일자리정책과의 기능을 보강하기로 했다.

과 단위로는 글로벌 산업·문화·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국제협력담당관을 신설하고, 일자리와 교육, 주거 등 맞춤형 청년정책 지원을 위한 청년정책과도 만든다. 전주발전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 및 국회·중앙부처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서울세종사업소도 신설한다.

효과적인 민원 응대와 현장 중심의 행정처리를 위해 본청에 있는 청소·공원·녹지 민원 관련 업무는 완산·덕진구청으로 이관한다.

시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정책적 직관성을 확보하고 중앙부처·전북도와의 연계성을 고려해 행정기구 명칭도 바꾸기로 했다.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은 경제산업국으로, 생태도시국은 도시건설안전국으로,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는 자원순환본부로, 맑은물사업본부는 상하수도본부로,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는 도서관본부 등으로 각각 변경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기존 조직을 재구조화하는 과정에서 한정된 기준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유사업무의 부서 간 기능도 조정하기로 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기존 5국 1단 2구 2직속 8사업소 88과·담당관 편제는 1실 5국 2구 2직속 10사업소 86과·담당관으로 개편되며, 국·과 단위 기구 수는 변동이 없다.

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안을 이달 19일부터 29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해 시민들의 의견을 모을 계획이다. 이후 9월 중 열리는 제395회 전주시의회 정례회 심의·의결을 거쳐 10월 중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박형배 전주부시장은 "이번 조직개편은 민선8기 시정의 핵심인 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문화 중심지 전주 만들기에 중점을 뒀고,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으로 전주 대변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기자

국립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 유치 총력

여가부, 오늘 익산서 건립지역 후보지 현장 실사

김관영 도지사·정헌율 시장, 설명회 참석 '유치전'

전북도(도지사 김관영)와 익산시는 12일 여성가족부의 '국립 호남권 청소년디딤 센터' 건립지역 선정평가 현장실사에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정헌율 익산시장이 참여해 익산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국립 청소년디딤센터는 학습·정서·행동상 장애를 가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성장과 재활을 위해 적합한 치료·교육·재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거주형 치료재활시설이다.

현재 여성가족부가 호남권에 1곳을 추가 설치하기로 공모했으며, 이에 익산시와 광주광역시가 유치를 위해 경쟁 중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직접 익산 현장 설명회에 참석해 치료와 교육·재활공간으로서의 부지 적합성, 생태체험공간 및 역사문화자원 등 지역연계자원의 우수성, 호남·충청권의 청소년들의 이용에 효과적인 위치 등 익산 유치의 타당성을 평가위원에게 설명하며 익산 유치전에 나선다.

그간 전북도와 익산시는 국립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 유치를 위해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국회 등을 방문하며 사업 필요성을 설명해 왔으며, 민관추진위원회(위원장 행정부지사)를 구성해 업무지원과 협약 추진 및 지난 7월에는 익산시 의회에서 익산시 유치 건의안을 결의해 여성가족부에 송부하기도 하는 등 유치를 위한 치열한 노력을 전개해왔다.

김관영 도지사는 "다양한 생태체험 공간과 역사문화자원을 품은 익산시는 청소년 재활을 위한 장소로 최적"이라며,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새만금 유치에 이어 이번 디딤센터의 선정으로 전라북도의 브랜드 가치 제고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장실사는 익산시를 먼저 방문 후 광주광역시를 방문해 진행하는 것으로 지자체의 참여인원을 최대 5명 이내로 제한하고, 외부 인사의 평가위원 접촉 시 감점을 부여하는 등 엄격한 분위기 속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이 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경수기자·익산=이재춘기자

도, 익산 왕궁 학호마을 축사 매입 본격 추진

전북도(도지사 김관영)가 익산시와 함께 왕궁면 학호마을 일반인 현업축사 매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2024년까지 총 사업비 220억원을 투입하여 학호마을 24농가에서 돼지 2만여 마리를 사육하는 축사 78천㎡를 매입하고 바이오 순환림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전북도는 학호마을 현업축사 매입을 위해 이번 1회 추경에 도비 25억5,000만원(2022년 사업비의 30%)을 확보해 익산시에 지원하고, 새만금 수질개선 및 도민들의 고질적인 악취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전북도와 익산시는 축사 매입을 위해 그간 공유재산 취득 심의 등 사전 행정절차 준비, 가축 사육두수 등 물건조사 등을 진행했고, 이번 추경 확보로 올해 계획된 12농가 3만9,000㎡(전체 사업물량의 50%) 매입을 추진하게 됐다.

나해수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익산시 등과 함께 매입부지를 활용한 생태복원 사업, 바이오순환림 조성 등 과거 환경오염원이었던 공간을 생태복원 명소로 관광 자원화하는 사업으로 개발, 국가사업화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경수기자·익산=이재춘기자

손 씻기·마스크 착용… 개인방역 수칙 준수해주세요.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